

1997년 9월 29일 월요일

□ 한국지역주의의 발생과 고착화 과정-지역감정에서 지역주의로

지역 패권주의, 한국 현대사회의 눈

이번 15대 대선은 영남권 후보가 나오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선거다. 영호남 대결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초기 지역감정의 단계를 지나 이제 한국사회를 좌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확산과 한국사회의 거듭남을 바라는 마음으로 본란을 기획했다. <편집자>

국심는 순서

1. 한국 지역주의의 발생과 고착화 과정
2. 한국 지역주의의 특성
3. 한국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견해

차 명 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강사>

우리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주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특히 영-호남의 편견과 갈등, 대립 등을 통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 독점으로 나타나는 영남의 지역패권주의와 이로부터 소외된 호남의 지역저항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지역주의가 국가권력의 독점과 배제의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면 권력 독점의 형태가 완화되거나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통해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비단 정치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부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정지역에 의한 국가권력의 독점과 배제로 나타나는 지역주의는 고위 정치관료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박정희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한 명의 경북대통령과 두 명의 경남대통령을 배출한 경남지방은, 5공시절 차관급 관료 1백55명중 44%(67명), 6공시절에는 60%를 점유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패권주의 권력독점 현상은 권력과 실권이 주어진 요직일수록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의 실장급 이상과 청와대와 검찰의 요직은 영남출신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1992년 당시 각 부처의 국장급 1백25명 가운데 영남이 58명, 나머지 67명은 7도 출신이었다. 그리고 1988년 당시 서기관급 이상의 서울시장 관리는 총 1백29명이었는데 그 중 영남출신이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서울시 구청장중 호남, 제주, 강원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을 정도로 서울은 영남에 의해 완전 장악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도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 고위관료들이 거친 국가고시의 합격률을 보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말에 시행된 행정고시 합격자들의 출신지역을 비교해 보면 영호남이 5대 4 정도로 거의 백중세로 나타났으나 이들이 고위직에 오를 시기인 1980년대의 이 비율은 8.2대 1.8로서, 호남 출신은 그동안 대부분 도대되었음을 알 수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광주민중항쟁. 지역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

있다. 군의 경우, 영남에 의한 패권주의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1960년부터 1990년까지 10대에 걸친 24년의 임기 동안 20년을 영남출신 군인들이 육군참모총장을, 해군참모총장은 21년 임기 가운데 18년을, 공군참모총장은 21년중 16년을 독식하였다. 이러한 영남의 패권주의는 경제분야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1988년 당시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중 영남출신이 35.3%를 차지하였고, 이와 같은 현상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장들중 대개 영남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금융부분에서의 영남패권주의는 영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용이하게 돈을 빌려 쓰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어, 1989년 당시 30대 재벌의 여신비율은 영남연고가 57.8%를 차지하여 3.7%의 호남연고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1996년 대기업 대표이사의 출신지역 분포는 영남이 39%, 서울 32%, 호남 6%이다. 50대 재벌기업 대표이사의 출신지역 분포는 영남이 39%, 서울 32%, 호남 6%이다. 50대 재벌기업 대표이사의 출신지역 분포는 영남이 39%, 서울 32%, 호남 6%이다. 50대 재벌기업 대표이사의 출신지역 분포는 영남이 39%, 서울 32%, 호남 6%이다.

이렇게 국가와 경제부분에서 나타나는 영남지방의 패권주의는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와 재야운동권, 그리고 노동운동권에서도 주요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동시에 우리들의 의식구조에도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특히 호남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호남출신을 '하와이'로 지칭하면서, 신뢰할 수 없고 약삭빠른,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갖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우리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호남에 대한 배제와 경계, 그리고 '파목하고 추진력있는,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영남의 지역패권주의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우리사회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지역적 편견은 주지하다시피 일시적이며 표면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작업을 통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지역주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백제와 신라의 해묵은 원한관계, 고려대조 왕건의 혼요집조, 농

업적 필요로움에 대한 시기심, 정여립의 난을 비롯한 몇 차례에 걸친 민란의 본거지인 호남에 대한 편견 등의 역사적 배경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 팽배한 지역주의는 이러한 해석보다는 박정희시대 이래 줄곧 유지되어 온 영남의 기득권 창출과 호남의 지속적인 도전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주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본주의와 관료주의, 그리고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 부재에 따른 연고주의와 패거리주의에 의해 강화되고 고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영남에 의한 지역패권주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총체적인 해악이라 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이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인들의 한을 재생산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 지역주의는 바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남조선호사상으로 여야나대를 이 가장 높은 영남지방의 일반적 정서를 연상시켜,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인 것이다.

□ 지역주의 연구동향

다양한 지역주의 이론

1950년대의 지역감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이래 최근 황태연 교수의 내부 식민지론에 이르기까지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논문 및 평론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연구 내용 및 경향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 지역주의와 관련된 가장 초기의 연구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역차별의 주요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위치에서 본 지역감정에 관한 연구들이다. 대체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지역주의를 인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편견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나 실천적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때로 기존의 지역편견을 재확인하는 기제가 되기도 했다.

둘째, 한국사회 지역간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의 산업화 과정 자체가 말해줄듯이 한국의 산업 및 경제구조가 지역간에 극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각 지역별 삶의 구조 및 생활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도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셋째, 정치권력의 지역패권 및 지역주의 정권에 대한 지적이다. 박정희 정권 이래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정권, TK정권, PK정권 등의 사회적 담론이 말해 주고 있듯이 장기독점해 온 지역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다.

넷째, 투표형태 및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주의의 구도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지난 13대 대선 이래 매 선거를 전후해서 반복되는 연구논문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근대적, 비합리적 양식으로 비판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끝으로 앞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권력적 지역주의의 구조 속에서 정치적 지역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논의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심리적 불평등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모두 무차별적으로 무책임하게 부정한다. 이것이 이른바 양비론적 지역주의의 시각이다.

자료 : 전복대 세미나집(지역-지역주민-지역화) 지역주의 문제의 재인식과 당면정책제정

□ 서평- '현대사상' 가을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

"지식인 문화와 현실 사이의 조화로운 소통공간"을 표방하면서 창간된 민음사의 '현대사상' 가을호가 출간되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요 쟁점 부각 및 공론 형성, 21세기 문화의 모델 찾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대사상'은 창간호에서 '백두한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여름호에서 '한국에서의 모더니티'를 다룸으로써 현재 인문, 사회학적 관심사를 적절히 조명하고 있다. 이번호 출간된 가을호는 "문화연구, 그 쟁점과 미래"라는 기획특집이 돋보인다.

문화연구에 대한 관심은 이미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문화과학'이나 '이매진', '이다' 등 참신한 기획과 열정에 비한다면 이번 가을호의 문화기획은 늦은감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현대사상'이 밝히고 있듯이 가을호에서 기획된 주제 자체가 한국에서의 문화연구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문화연구가 이미 지식 사회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대중문화가 시대적인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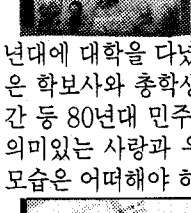
다면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는 그리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한 때 '유행'이 아닌가라는 회의적인 평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대중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을 이해하고 초기연구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쟁점과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현대사상의 기획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글들이 마련되었다.

- ▲이동연-한국 문화연구의 과정과 실천적 토대
- ▲김현미-페미니즘과 문화연구는 행복하게 만나는가
- ▲송도영-1997년, 한국, 인류학식 대중문화 연구 산책
- ▲임기호/정현주/황형- '문화과학'에서 '이매진'까지
- ▲고경범-문화담론을 향한 떠돌이 시선
- ▲김상배-장성우, 시대의 회절 또는 회절의 내러티브

신 간 안 내



위대한 리더십 이 책은 '위대한 리더십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역사를 뒤바꿀 만큼 성공적이고 강력하며 균형 잡힌 리더십은 놀랍게도 학습된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독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위인들이 역사를 뒤바꿨던 사건의 현장에서 어떻게 절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생생히 목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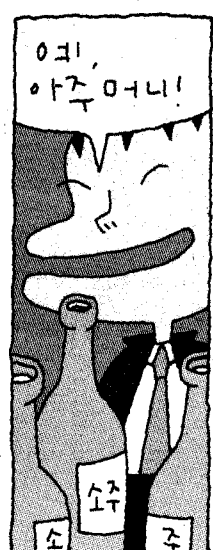


그들, 81학번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현재 30대 나이인 386세대, 소설의 주인공은 학보사와 총학생회 활동을 중심으로 시위, 강제징집, 투옥, 정간 등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격랑에 휩쓸렸던 젊은이들이다. 그들에게 의미있는 사람과 우정이란 무엇이며, 또 현실을 규정하는 정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돈벌이의 벤처창업소설 '김돈벌'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가 창업을 준비하며 실행해가는 과정을 독자들이 편하게 따라 읽어가며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썼다. 취업난과 실업의 위기를 전파위부의 계기로 삼아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 젊은 패기와 뛰어난 도전정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민을 4 있는 친구-삼성



당신을 새롭게 하는 힘, 삼성에는 늘 변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유레디? 교수생각. END.